

2020년 3분기 창원시 고용동향

2020. 10

창원상공회의소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창원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
 -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
 - 고용보험DB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고용보험통계: 승인번호 제327002호)
 - 피보험자의 포괄범위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계약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자,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
 -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
 -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은 부분(자영업자,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
 -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조사기간

- 2020년 10월 26일 ~ 28일

4. 조사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규모별, 업종별)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규모별, 업종별)

II. 요약 및 시사점

- ◎ 3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근로자 수가 1차금속,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등 지역의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했음. 제조업 근로자 수 감소는 27개 분기 연속임.
- ◎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근로자의 이직성향이 약화했고, 노동가능 연령 또한 높아짐에 따라 퇴직자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음. 퇴직자 수 감소와 중장년층 중심의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전체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음. 제조업의 경우 50대 근로자의 비중이 30대를 상회했으며, 비제조업의 경우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20대와 30대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 2020년 3분기 창원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근로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25만 4,714명을 기록했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10인 이상 100인 미만'과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5개 분기 연속 감소했음.
- ◎ 제조업을 근로자 수의 감소는 27개 분기 연속으로 이루어진 반면,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는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 증대에 따라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제조업 근로자 수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음.
- ◎ 제조업 업종별로 '전기장비'+27.1%)와 '의료·정밀·광학기기'+1.1%)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근로자 수 감소를 보였음. 특히 '1차 금속'(-14.3%), '자동차 및 트레일러'(-6.0%), '기계 및 장비'(-4.9%) 등 근로자 수 비중이 큰 업종에서 감소폭이 컸음.
- ◎ 서비스업 업종별로 '공공행정·사회보장'+51.8%), '보건업 및 사회복지'+5.9%) 등 정부의 공공서비스 관련 근로자 수는 증가한 반면, '사업지원 및 임대'(-6.7%), '운수 및 창고'(-5.3%) 등 제조업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종의 근로자 수는 감소했음.

Ⅲ. 창원시 고용동향

1. 창원시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 2020년 3분기 말 기준 창원지역 고용보험¹⁾에 가입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수는 25만 4,714명임. 이는 전년 동분기 대비 1.2%(3,115명) 증가한 수입.
-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가 0.2% 감소한 6만 1,401명,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3만 3,349명(-0.4%),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9만 2,793명(-0.3%)임.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5.3% 증가한 6만 7,171명을 기록했음.

창원시 규모별 근로자 수 동향(전년 동기 대비)

(단위 : 명)

	'19				'20		
	1Q	2Q	3Q	4Q	1Q	2Q	3Q
전 체	253,110 (3.0%)	251,730 (2.0%)	251,599 (1.2%)	253,285 (0.2%)	251,418 (-0.7%)	251,440 (-0.1%)	254,714 (1.2%)
10인 미만	61,386 (1.5%)	62,398 (2.5%)	63,804 (2.3%)	64,984 (1.4%)	65,262 (6.3%)	65,861 (5.5%)	67,171 (5.3%)
10인 이상	96,622 (4.5%)	93,604 (0.0%)	93,056 (-0.6%)	92,587 (-3.4%)	92,469 (-4.3%)	92,289 (-1.4%)	92,793 (-0.3%)
100인 미만	35,965 (5.6%)	33,793 (0.7%)	33,487 (-2.0%)	33,184 (-2.2%)	33,725 (-6.2%)	33,144 (-1.9%)	33,349 (-0.4%)
100인 이상	59,137 (0.6%)	61,935 (5.3%)	61,252 (4.9%)	62,260 (5.9%)	59,962 (1.4%)	60,146 (-2.9%)	61,401 (0.2%)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분기 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1) 고용보험 적용제의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10조 및 령 제2조, 제3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

2. 창원시 업종별 근로자 현황

- 창원 전체 근로자 수를 이끈 업종(대분류)은 서비스업임. 3분기 제조업 근로자 수가 10만 6,709명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13만 5,120명으로 4.1% 증가했음.
- 제조업 근로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는 27개 분기(6년 3개 분기) 연속으로 이루어졌음. 반면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는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에 따라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해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제조업 근로자 수를 상회했으며, 그 격차도 심화하고 있음.

창원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전년 동기 대비)

(단위 : 명)

	'19				'20		
	1Q	2Q	3Q	4Q	1Q	2Q	3Q
전 체	253,110 (3.0%)	251,730 (2.0%)	251,599 (1.2%)	253,285 (0.2%)	251,418 (-0.7%)	251,440 (-0.1%)	255,260 (1.5%)
제조업	110,114 (-0.7%)	109,466 (-1.3%)	108,398 (-2.2%)	107,789 (-3.1%)	109,126 (-0.9%)	106,694 (-2.5%)	106,709 (-1.6%)
서비스업	129,461 (6.8%)	129,012 (5.4%)	129,811 (4.6%)	132,045 (3.3%)	129,077 (-0.3%)	131,551 (2.0%)	135,120 (4.1%)
건설업	10,131 (-1.9%)	9,985 (-3.2%)	9,951 (-3.6%)	9,970 (-3.3%)	9,740 (-3.9%)	9,878 (-1.1%)	9,886 (-0.7%)
기타	3,404 (2.3%)	3,267 (2.0%)	3,439 (1.4%)	3,481 (2.6%)	3,475 (2.1%)	3,317 (1.5%)	3,545 (3.1%)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분기 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함.

- 창원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기계 및 장비'가 2만 9,0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1만 6,518명, '전기장비' 1만 6,070명, '1차 금속' 9,664명, '기타 운송장비' 9,488명 순임.
- 제조업 중 '전기장비'+(27.1%), '의료·정밀·광학기기'+(1.1%)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근로자 수 감소를 보였음. 특히 '1차 금속'(-14.3%), '자동차 및 트레일러'(-6.0%), '기계 및 장비'(-4.9%) 등 근로자 수 비중이 큰 업종에서 감소폭이 컸음.

창원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전년 동기 대비)

(단위 : 명)

	'19				'20		
	1Q	2Q	3Q	4Q	1Q	2Q	3Q
제조업	110,114 (-0.7%)	109,466 (-1.3%)	108,398 (-2.2%)	107,789 (-3.1%)	109,126 (-0.9%)	106,694 (-2.5%)	106,709 (-1.6%)
기계 및 장비	30,988 (-1.6%)	30,888 (-1.8%)	30,495 (-2.2%)	30,066 (-3.4%)	29,745 (-4.0%)	29,256 (-5.3%)	29,014 (-4.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7,968 (-3.0%)	17,691 (-3.7%)	17,570 (-4.1%)	17,433 (-5.2%)	16,753 (-6.8%)	16,663 (-5.8%)	16,518 (-6.0%)
전기장비	12,843 (0.9%)	12,941 (2.5%)	12,642 (1.0%)	12,816 (0.7%)	15,842 (23.4%)	15,383 (18.9%)	16,070 (27.1%)
1차 금속	11,446 (-6.7%)	11,349 (-6.4%)	11,281 (-6.7%)	11,137 (-7.6%)	10,803 (-5.6%)	9,883 (-12.9%)	9,664 (-14.3%)
기타 운송장비	10,113 (2.6%)	10,016 (0.6%)	9,936 (-2.2%)	9,954 (-3.8%)	9,768 (-3.4%)	9,615 (-4.0%)	9,488 (-4.5%)
금속가공 (기계·가구제외)	8,070 (0.9%)	8,014 (-0.5%)	7,941 (-2.8%)	7,927 (-1.9%)	7,851 (-2.7%)	7,722 (-3.6%)	7,742 (-2.5%)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등	6,354 (3.6%)	6,397 (2.9%)	6,375 (1.6%)	6,314 (-0.2%)	6,357 (0.0%)	6,380 (-0.3%)	6,375 (0.0%)
의료·정밀·광학기기 등	3,476 (4.7%)	3,445 (-1.3%)	3,452 (1.2%)	3,589 (5.4%)	3,579 (3.0%)	3,470 (0.7%)	3,490 (1.1%)
고무·플라스틱 제품	1,797 (-0.8%)	1,756 (-3.7%)	1,743 (-2.3%)	1,728 (-1.9%)	1,722 (-4.2%)	1,728 (-1.6%)	1,736 (-0.4%)
식료품	1,651 (10.6%)	1,634 (8.9%)	1,697 (7.7%)	1,683 (4.5%)	1,624 (-1.6%)	1,608 (-1.6%)	1,621 (-4.5%)
기타	5,408 (3.2%)	5,335 (0.7%)	5,266 (-1.0%)	5,142 (-4.3%)	5,082 (-6.0%)	4,986 (-6.5%)	4,991 (-5.2%)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분기 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기타 제조업은 '가구',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섬유제품(의복제외)', '음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을 포함함.

- 창원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이 3만 5,4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1만 4,920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1만 3,803명), '전문, 과학 및 기술'(1만 2,573명), '운수 및 창고업'(1만 419명), '교육'(8,846명), '숙박 및 음식점업'(8,785명)이 뒤를 이었음.
- 보건 및 방역강화와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 증가,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책 등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공공행정, 숙박 및 음식, 도소매 등의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제조업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서비스업종인 운수 및 창고, 사업지원 및 임대, 금융 및 보험업 등은 근로자 수 감소를 보였음.

창원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추이(전년 동기 대비)

(단위 : 명)

	'19				'20		
	1Q	2Q	3Q	4Q	1Q	2Q	3Q
서비스업	129,462 (6.8%)	129,013 (5.4%)	129,812 (4.6%)	132,046 (3.3%)	129,077 (-0.3%)	131,551 (2.0%)	135,120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31,907 (8.1%)	32,807 (9.0%)	33,461 (8.2%)	33,758 (6.7%)	33,852 (6.1%)	34,784 (6.0%)	35,433 (5.9%)
도매 및 소매업	14,361 (1.0%)	14,762 (3.5%)	14,691 (2.3%)	14,671 (1.6%)	14,479 (0.8%)	14,783 (0.1%)	14,920 (1.6%)
사업 지원 및 임대	15,182 (-8.2%)	15,301 (-7.9%)	14,801 (-6.0%)	14,679 (-6.3%)	14,549 (-4.2%)	14,047 (-8.2%)	13,803 (-6.7%)
전문, 과학 및 기술	11,635 (4.7%)	11,783 (4.5%)	11,880 (5.3%)	11,972 (5.4%)	12,221 (5.0%)	12,404 (5.3%)	12,573 (5.8%)
운수 및 창고	10,978 (3.6%)	11,003 (3.7%)	11,000 (2.7%)	10,903 (0.4%)	10,604 (-3.4%)	10,529 (-4.3%)	10,419 (-5.3%)
교육	7,787 (10.4%)	8,423 (12.6%)	8,482 (9.6%)	8,677 (6.1%)	8,307 (6.7%)	8,751 (3.9%)	8,846 (4.3%)
숙박 및 음식점	7,915 (11.0%)	8,205 (11.5%)	8,468 (13.7%)	8,797 (15.4%)	8,533 (7.8%)	8,547 (4.2%)	8,785 (3.7%)
공공행정, 사회보장	8,782 (79.6%)	5,540 (28.6%)	5,307 (3.8%)	6,978 (-3.2%)	5,122 (-41.7%)	5,957 (7.5%)	8,058 (51.8%)
협회 및 단체, 수리	5,842 (3.5%)	5,788 (1.7%)	5,745 (-1.1%)	5,675 (-2.4%)	5,728 (-2.0%)	5,884 (1.7%)	5,986 (4.2%)
부동산	5,139 (4.0%)	5,173 (0.9%)	5,464 (2.5%)	5,401 (4.9%)	5,474 (6.5%)	5,525 (6.8%)	5,823 (6.6%)
금융 및 보험업	5,164 (-0.1%)	5,176 (0.7%)	5,179 (0.9%)	5,174 (0.6%)	5,126 (-0.7%)	5,161 (-0.3%)	5,160 (-0.4%)
예술, 스포츠	2,357 (14.4%)	2,521 (19.8%)	2,764 (33.9%)	2,762 (21.7%)	2,551 (8.2%)	2,644 (4.9%)	2,660 (-3.8%)
정보통신	2,412 (3.7%)	2,530 (6.8%)	2,569 (8.0%)	2,598 (6.7%)	2,531 (4.9%)	2,535 (0.2%)	2,654 (3.3%)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분기 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3. 창원시 고용보험 자격 취득(취업)·상실(퇴직) 현황

- 2020년 3분기, 노동이동의 정도를 보여주는 취업자 수는 2만 9,6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늘었고, 퇴직자는 2만 5,732명으로 2.6% 줄었음.
- 지역 제조업의 장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이 더해져 기업의 채용의지가 둔화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5개 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증가한 모습임. 또한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유지 지원책 확대로 퇴직자 수는 감소했음.
- 취업자 중 경력취업자는 11.3% 증가한 2만 5,732명, 신규취업자는 8.7% 증가한 3,469명으로 신규·경력 취업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임.

취업 및 퇴직자 수(전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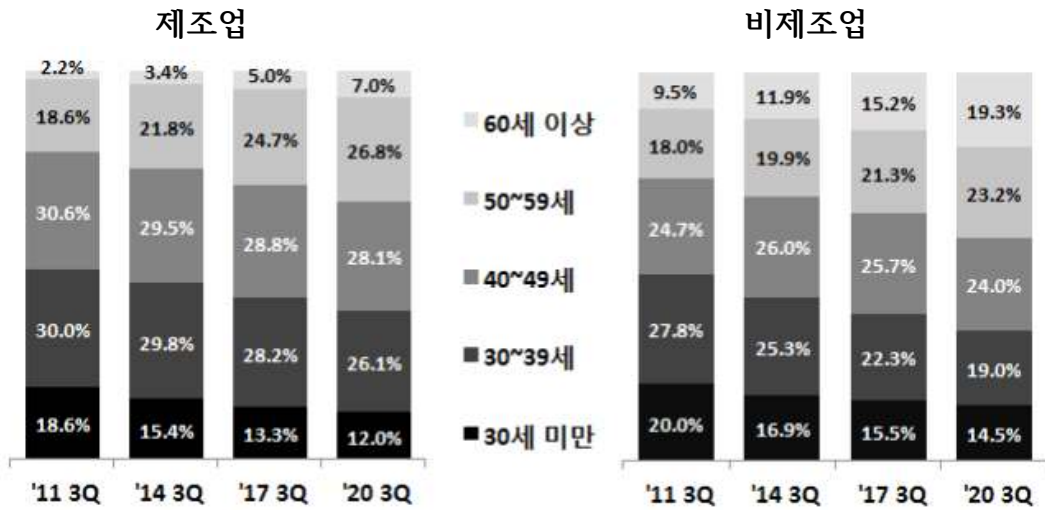
(단위 : 명)

	'19				'20		
	1Q	2Q	3Q	4Q	1Q	2Q	3Q
취업자	39,310 (10.9%)	27,329 (-9.4%)	26,740 (-4.0%)	27,392 (-3.3%)	33,626 (-14.5%)	25,474 (-6.8%)	29,675 (11.0%)
신규취업자	5,207 (24.8%)	3,038 (3.7%)	3,192 (-5.9%)	3,068 (-12.1%)	4,052 (-22.2%)	2,798 (-7.9%)	3,469 (8.7%)
경력취업자	34,103 (9.0%)	24,291 (-10.8%)	23,548 (-3.7%)	24,324 (-2.1%)	29,574 (-13.3%)	22,676 (-6.6%)	26,206 (11.3%)
퇴직자	38,534 (8.9%)	27,979 (-2.6%)	26,422 (1.7%)	25,006 (4.4%)	38,243 (-0.8%)	24,892 (-11.0%)	25,732 (-2.6%)

※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 '전분기 피보험자 + 당분기 취득자 - 당분기 상실자'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근로자의 이직성향이 크게 떨어졌고, 노동가능 연령 또한 높아짐에 따라 퇴직자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음. 퇴직자 수 감소와 중장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전체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음.
- 2020년 3분기 기준 연령별 근로자 수를 보면, 전체 25만 5,260명 중 '30세 미만' 근로자 수는 3만 4,302명, '30세 ~ 39세' 5만 6,190명, '40 ~ 49세' 6만 5,558명, '50세 ~ 59세' 6만 3,087명, '60세 이상' 3만 6,123명임.

창원 연령대별 근로자 수 비중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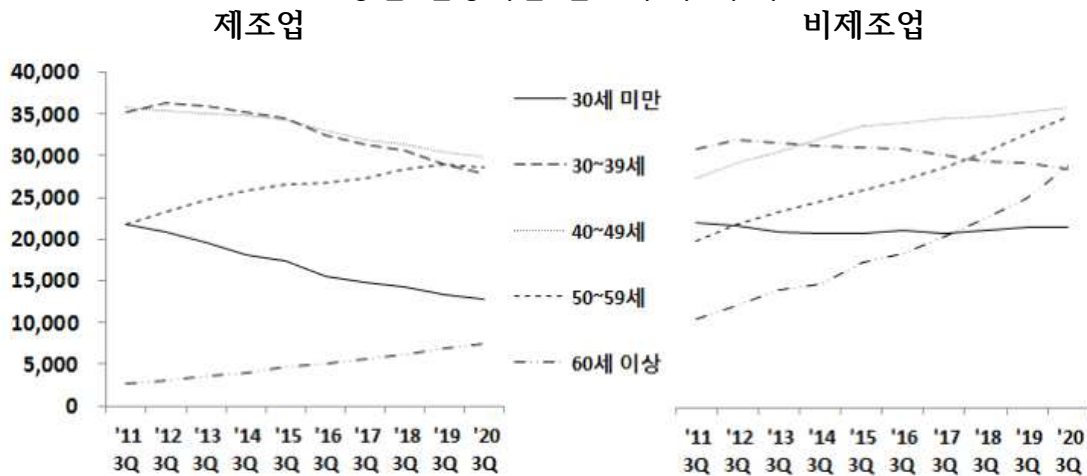
- 전체 근로자 수에서 40대 근로자 수 비중이 2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 근로자 수가 24.7%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업종별로 제조업의 경우 40대 근로자 수 28.1%, 50대 26.8%, 30대 26.1%, 30세 미만 12.0% 순이고, 비제조업의 경우 40대 24.0%, 50대 23.2%, 60대 이상 29.3%, 30대 19.0%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 근로자 연령별 비중에 있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는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업종별로 제조업의 경우 50대 근로자의 비중이 30대 비중을 상회했으며,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60대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20대와 30대의 비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창원 연령대별 근로자 수 추이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